

6. 다음 가상 대담 속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공론장에서 행정 및 경제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 ② 공론장에서 기업과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 ③ 공정한 담론 절차를 준수한 합의의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 ④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의 개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⑤ 공론장에서 정확하고 이해 가능하며 진실한 말로 주장해야 합니다.
- Killer Type 3) 저서참두해결이 이기 행정 경제체계의 영향력이 과도해지고 있음.*

7.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결혼은 당사자 간의 애착과 계약에서 출발한다. 가족은 하나의 인격이며 인륜적 정신이다. 부부는 사랑의 감정으로 실제적 통일을 이루고 자녀를 통해 객관성을 지닌 결합의 전체를 이룬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들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한편 자녀가 법적 인격과 자신의 재산을 갖추어 가정을 꾸릴 자격이 생길 때 가족의 해체가 시작된다.

<보기>

- ㉠ 가족은 부모와 자식이 결합된 인격적인 공동체이다.
- ㉡ 어린 자녀는 부모가 간섭할 수 없는 개별적 존재이다.
- ㉢ 부부는 자신들의 자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다.
- ㉣ 결혼은 남녀 간의 법적 계약이 아니라 애착으로 성립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8.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고대 서양 사상이자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진인(眞人)은 분별심으로 도를 버리지 않고, 인위로 자연을 도가 넘지 않는다. 자연은 삶을 주어 수고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을: 현자(賢者)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이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죽어도 악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어떠한 경우든 삶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한다.

- ① 갑: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처럼 필연적인 과정이다.
 - ② 갑: 삶과 죽음의 분별에서 벗어나야 도에 일치할 수 있다.
 - ③ 을: 죽음을 통해 인간의 쾌락과 고통의 감각이 소멸된다.
 - ④ 을: 불멸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날 근거는 내세의 행복에 있다.
 - ⑤ 갑, 을: 이상적 인간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이타르스 = 내세 영부구경사. 이를 뜻한다면 1) 2) 3) 5)를 제외하여 풀어야함.*

9. 갑, 을이 <사례>에 대해 취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소수자들이 받은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기회의 제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을: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노력이나 업적과는 무관하게 소수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일반 사람들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들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

<사례>

유럽계 미국인 A는 미국의 B 의과 대학에 지원했다. 그런데 이 대학은 소수 집단 학생의 수를 늘리기 위해 입학 정원의 16%를 그들에게 할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A는 우수한 입학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했다. 이에 A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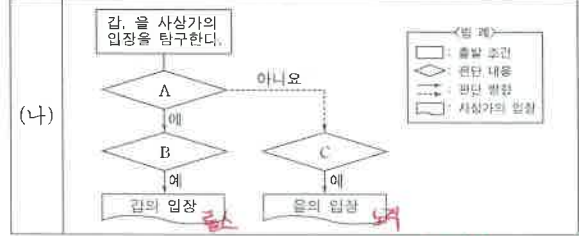
- ① 갑: 입학 정원에서 소수자의 몫을 할당하는 것은 정당하다.
- ② 갑: 소수자를 우대하는 입학 정책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한다.
- ③ 을: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는 입학 정책은 공정 경쟁을 해친다.
- ④ 을: 소수자의 입학을 위해 다른 지원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소수자를 우대하는 입학 정책은 부당한 역차별을 심화시킨다.

7) ㉠ 신자를 확립하면 ㉡ 제사를 잊고 풍다 ㉢ 헛관리도 남다! ㉣ 이러한 생각이다. 옳은게 당연하다. 윤는 무제의 배설위에서도 개별적인 것

10. (가)의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공리주의는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대하지만, 나의 공익의 실현은 정의의 원칙을 원초적 합의 대상으로 본다.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므로 정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을: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부차적 위치에 두지만, 나의 정의론은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 존중의 대상으로 본다. 최소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므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보기>

- ㉠ A: 공리의 극대화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가?
- ㉡ B: 원초적 합의는 심리학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배제할 필요가 없는가?
- ㉢ C: 기본 제도가 공정해야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협동이 가능한가?
- ㉣ C: 최소국가는 개인 간의 계약 이행에 제대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가?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 이타르스 = 내세 영부구경사. 이를 뜻한다면 1) 2) 3) 5)를 제외하여 풀어야함. 그러므로 원초적 합의 대상인 기본제도가 공정해야함.*

1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접근 능력과 정보 수용 능력을 가리킨다. 정보 격차는 주로 그러한 능력들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약자에게 정보 접근 및 수용 능력을 제공하는 정보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을: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매체의 쌍방향성이 강화됨에 따라 접근 및 수용 능력 이외에 정보 생산 능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정보 격차는 주로 정보 생산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므로 정보 생산 능력을 제공하는 정보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① 갑: 정보 약자에게는 정보 접근 능력만을 제공해야 한다.
- ② 갑: 정보 격차의 주된 원인은 정보 생산력의 차이에 있다.
- ③ 을: 정보 복지의 핵심 과제는 정보 기기의 평등한 분배이다.
- ④ 을: 정보 약자가 정보 생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갑, 을: 정보 리터러시는 접근 및 수용 능력에 국한되어야 한다.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다수에게 순응하기보다 그들에게 온 힘을 다해 맞설 때 소수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양성이 아니라 다수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정부는 정의에 입각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을: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표현한다. 법에 대한 충실성은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다수의 정의관에 호소하는 불복종의 의도를 보여 준다.

갑: 정의로운 정부에서는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의 시민을 지배한다.

을: 시민 불복종은 국가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합법 행위이다.

을: 모든 시민은 언제나 다수가 결정한 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갑, 을: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어야 한다.

- ㉠ 가, 나, 르
 - ㉡ 가, 다, 르
 - ㉢ 나, 르
 - ㉣ 가, 다, 르
 - ㉤ 나, 다, 르
1. 법과 처벌에 대한 인정 but 위법행위임은 인정.
 2. 다수 법이 언제나 옳을지라도 법에 대해 충실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 정의감에 입각한 법이 부정적이라면, 지시된 목적과 그리고 충실성의 한계를 넘었다면 불복종해야 한다.

13.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예술 작품에 대한 기술적 복제는 수공적인 복제보다 더 큰 독자성을 지니며, 예술 작품의 존속에 아무런 손상도 입히지 않는다.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 가능성의 시대에서 예술 작품의 '이우라'는 위축된다. 그러나 사진이나 영화와 같은 영역에서 대량 복제 기술은 대중들로 하여금 개별적 상황 속에서 복제품을 쉽게 접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시 가능성을 중시하는 대중 예술이 기존의 세의(祭儀) 의식에 바탕을 둔 예술을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예술 작품은 새로운 기능을 지닌 현상물이 된다.

- ㉠ 대중 예술은 원작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의 가치를 높여 준다.
 - ㉡ 대중 예술은 표준화된 생산을 통해 미적 체험을 제공한다.
 - ㉢ 대중 예술의 복제 기술은 예술 작품의 신비감을 증진시킨다.
 - ㉣ 대중 예술의 복제 기술은 대중과 예술 작품의 거리를 좁힌다.
 - ㉤ 대중 예술에서는 예술의 숭배 가치가 줄고 전시 가치가 늘어난다.
- 유일성의 가치를 높여주거면 하나만 있어야지.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노동은 '신이 규정한 삶의 최고 목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청교도는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에 따라 노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 영리 추구의 결합하고 금욕적 절약을 통해 자본을 형성하여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

을: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자연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이 일어난다.

- ㉠ 갑은 청교도가 노동은 신의 명령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 ㉡ 갑은 청교도가 부의 축적을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 ㉢ 을은 자본주의의 노동 분업이 노동 소외의 원인이라고 본다.
- ㉣ 을은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의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 ㉤ 갑은 소명 정신, 을은 노동 착취를 자본 축적의 원천으로 본다.

부를 축적하기는 권세권도일 뿐 구원의수단은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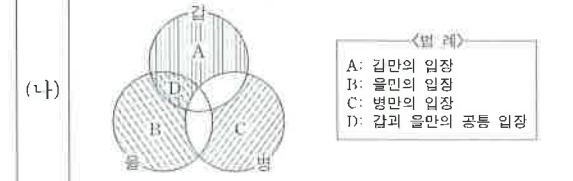
* 양인 기본적설이든데도 ㉢ ㉤ 번 중 고른건지
 인정적인 접근.
 특히 ㉠은 처음 듣는 선지이며 ㉡은 가가만가만 점. 제만
 신자로서 빛나는 선지이므로 패스. ㉢은 테일러의 대표이론.
 신자로서의 권이 공동체라는
 Killer Type 3) 번위에서까지 의무를 지시하지
 L 선지(제사)를 위해 의무를 지시함
 = > 수단은오만 대우받아야 안 된다. 인정적인 것.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케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평등의 논리를 인간에게만 적용하고 종들 간의 관계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임의적이다.

을: 욕구를 가진 존재는 타자와 구분되는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 이 존재는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의 주체이며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병: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며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존재이다. 인간은 생명체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 A: 종의 차이만으로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 ㉡ B: 삶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를 '의무론의 관점'에서 존중해야 한다.
- ㉢ C: 인간에게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
- ㉣ D: 개체는 케고 감수 능력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 ㉠ 가, 다
- ㉡ 가, 나, 르
- ㉢ 나, 르
- ㉣ 가, 나, 르
- ㉤ 나, 다, 르

이 문제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레건은 해고감수력 외에도 여러가지의 '도덕적 지위' 부여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음. (복지...) > 제사(제)를 위해 고(高)로 해고감수력은 반드시 지녀야함, 테일러는 '목적론적 지위'를 시명제라면 도덕적 지위 부여

16. 다음 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군자는 밥을 먹을 때 다섯 가지를 살피야 한다. 우선 밥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와 밥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덕행이 완성되었는지를 헤아려서 공양(供養)을 받아야 한다. 마음을 절제하여 탐욕을 없애야 한다. 바른 처사와 좋은 약으로 건강을 보살피야 한다. 끝으로 도덕을 이루어야 먹을 자격이 있다. 즉 군자는 먹을 때에도 인(仁)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 ① 먹는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살피는 덕의 실천이다.
- ② 먹는다는 것은 자연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행위이다.
- ③ 먹는다는 것은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돌보는 과정이다.
- ④ 먹는다는 것은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문화적 행위이다.
- ⑤ 먹는다는 것은 자연을 인간의 소유로 만드는 과정이다.

17.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전쟁이 끝난 후 잠시 평화가 찾아와도 국가들은 더욱 강화된 재무장과 적대 정책을 세운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국가 간의 항구적인 평화 조약이 요구된다. **항쟁파론**

을: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이며,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속일 뿐이다. 불가능한 평화를 얻으려고 지금 얻을 수 있는 승리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다. **전쟁 주역**

병: 전쟁은 찬양되어서는 안 되지만, 도덕적 제약을 전제로 최고의 합법적 권위에 의해 선포되는 경우와 나를 지키기 위해 적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정의 전쟁론**

- ① 갑: 항구적 평화는 국가 간의 세력 균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 ② 을: 전쟁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최후의 정치적 수단이다.
 - ③ 병: 자국의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전쟁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 ④ 갑, 을: 전쟁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권을 보장할 때 정의롭다.
 - ⑤ 갑, 을: 전쟁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이다.
- 갑: 전쟁은 반드시 부정적임**

18.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거주(居住)함은 인간 존재의 근본 특성입니다. 인간은 원존체로서 밭, 하늘, 신성한 것들, 죽을 자들의 본질을 사물을 안으로 가져와 소중히 보살피며, 세계 안에서 건축하고 사유하면서 거주합니다. 인간은 자기 공간의 중심이 되며, 인간이 움직일 때마다 사물의 연관 체계로서 공간도 함께 변화합니다. 인간이 건축함과 거주함에서 사유함을 잊을 때 고향 상실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때 거주함에 대해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거주 공간이 상실되어 탈공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은 잃어버린 고향에 대해 숙고하고, 고향을 되찾아야 합니다.



- ① 인간의 거주 공간은 체험과 무관한 객관적 공간이다.
- ② 인간은 고향을 되찾기 위해 거주 공간을 떠나야 한다.
- ③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공간을 지배하고 통제해야 한다.
- ④ 인간은 사물을 보살피면서 거주 공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⑤ 인간은 거주함으로써 신적인 것들과 죽을 자들에게서 해방된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권한은 사회계약으로부터 나온다.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해야 한다.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비카리아**

을: 범죄에 대한 형벌은 사회의 최대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일반인에 대한 경고에 있다. 사형은 그 범죄자가 살아 있는 것이 나라 전체를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할 경우나 적절한 형벌이다. **방담**

<보기>

- ㉠ 갑: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사형보다 우월한 형벌이 존재한다.
- ㉡ 을: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동해보복을 위한 필요악이다.
- ㉢ 을: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 ㉣ 갑, 을: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 ① 가, 다
 - ② 나, 다
 - ③ 나, 라
 - ④ 가, 나, 라
 - ⑤ 가, 다, 라
- 반박** (가, 나, 라)
합의를 (가, 나, 라)
민은, 변함은 사회의 본이익장르 (나, 라)

20.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자기 유전 정보를 '아는 것이 병'입니다. 자신의 유전 정보에 대한 얕은 미래의 유전 질환에 대한 불안, 공포 등의 해악만 야기할 뿐입니다. 따라서 해악 금지의 원칙에 따라 자기 유전 정보를 '모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을: 자기 유전 정보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신의 유전 정보에 대한 얕은 미래의 유전 질환을 감안하여 스스로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 줍니다. 따라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자기 유전 정보를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기>

- ㉠ 갑: 자기 유전 정보를 알아야 불필요한 해악을 막을 수 있다.
- ㉡ 갑: 자기 유전 정보에 대한 무지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
- ㉢ 을: 자기 유전 정보를 알아야 자율적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된다.
- ㉣ 갑, 을: 미래의 불가피한 유전 질환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없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나, 라
- ⑤ 다, 라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6. 고대 동양 사상이 감, 음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 군자의 본성[性]은 비록 그의 뜻이 크게 행해진다 하더라도 더 늘어나지 않고, 비록 궁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 군자의 본성에 속하는 인의에는 그의 마음[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음: 사람에게 스승과 법도가 없으면 본성을 높이지 못하며, 스승과 법도가 있으면 노력[積]을 높이지 못한다. 김매고 밭 가는 일을 쫓아 능수가 되고, 깎고 다듬는 일을 쫓아 장인이 되듯이 예[禮]와 의[義]를 쌓으면 군자가 된다.

- 1 감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 추관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2 감은 인간의 본성이 성이나 악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3 음은 외적인 예와 의를 쌓으면 모든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4 음은 타고난 도덕성을 발휘시킬 수 있는 예를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5 감, 음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7.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모든 법(法)은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지속되지도 단절되지도 않으며, 같지도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만약 모든 상(相)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곧 어제를 보는 것이다. 어떤 대상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보기>

- 분별적 인식을 통해 궁극적 깨달음에 도달해야 한다.
말제(滅諦)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시를 실천해야 한다.
모든 존재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空]을 깨달아야 한다.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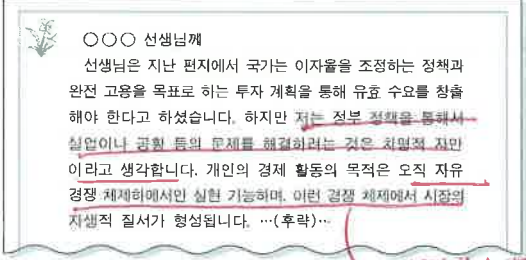
- 1 가, 나 2 나, 라 3 다, 르
4 가, 나, 다 5 가, 다, 르

8.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구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Table with 2 rows (가, 나) and 1 column. (가) contains text about良知 and 心. (나) contains a blank space for an answer.

- 1 본성[性]이 선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라.
2 참된 앎이 발휘될[致良知] 수 있도록 이기적 욕망을 제거하라.
3 헤아리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능력[良知]을 갖추도록 공리를 하라.
4 앎과 행위가 본래 하나임을 자각하고 일상에서 항상 선행을 하라.
5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깊이 있게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라.

9. 그림의 가상 편지를 쓴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중앙 집권적 계획을 통해 완전 고용에 도달해야 한다.
2 시장 경쟁 체제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필요하다.
3 국가는 시장 질서에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4 경제적 자유의 실현보다 경제적 평등의 보장이 더 중요하다.
5 시장의 자생적 질서 속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실현될 수 없다.

10. (가)를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궤를 속세로 낚말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Table with 2 rows (가, 나) and 1 column. (가) contains text about 性, 善, 惡, 心, 四心. (나) contains a grid with '황수헌' and '(의) 천' and text about 義理 and 善.

- 1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랑의 정신과 경이로운 마음이다.
2 사양과 시비의 마음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선천적인 덕이다.
3 덕으로 자라날 수 있는 쌓이나 뿌리에 해당하는 선한 마음이다.
4 이의를 배우고 익혀 이기적인 본성을 교화할 때 형성되는 덕이다.
5 측은과 수오의 마음을 일상에서 확충함으로써 얻게 되는 덕이다.

11. 다음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情)에 사단과 칠정의 분별이 있는 것은 성(性)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분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을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어찌 정만 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情)은 하나이지만 사단이다 칠정이다 말하는 것은 오직 이(理)만을 말할 때와 기(氣)를 곁하여 말할 때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칠정을 결합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입니다.**



갑



을

<보기>

- ①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함에 이가 탄 것인가? **X O**
- ② 사단은 이가 발한 성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인가? **X X**
- ③ 이는 순전한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에만 있는 것인가? **X X**
- ④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고 기는 형태와 작용이 있는가? **X O**

사단=정
이=발함
이게
존재함

-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1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모든 사람을 떼게 만드는 공동의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불의하지 않다. 폭력과 배신이 난무하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공동의 권력을 수립해야 한다. 이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힘을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을: 정치적 권력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려고 사용하는 조직된 폭력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와의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계급으로서 결합하여 혁명에 의해 지배 계급이 되고, 지배 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와 함께 계급 대립 및 계급 자체의 존재 조건을 폐지한다.

- ① 갑: 만인의 계약을 통해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X**
- ② 갑: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법만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X**
- ③ 을: 이상 사회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생산 수단을 독점하게 된다. **X**
- ④ 을: 모든 계급의 권력은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X**
- ⑤ 갑, 을: 국가는 폭력 혁명에 의해 필연적으로 소멸될 권력 기구이다. **X**

① 옳스 = 폭력혁명이다라 사회계약
② 자연상태에서는 도대체 규범도 없으므로 자연법만으로 보장받을 수 없음.

33 36

[13~14]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갑: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를 구별하는 것이 양자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이 바라는 것은 오직 의무가 문제일 때에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의무에 맞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도덕적인 행위는 아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만이 참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을: 도덕적 감정의 한 가지 원천이 유용성이라면, 그리고 이 유용성이 항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로부터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시인(是認)과 호의(好意)를 얻는다는 것이 도출된다. 여기에 도덕성의 기원을 상당한 정도로 설명해주는 원리가 있다.

13.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도덕의 기본적인 목적이 행복의 실현에 있음을 모르고 있다. **알고있다.**
- ② 도덕에 있어서 이성은 감정의 보조자일 뿐임을 모르고 있다. **알고있다.**
- ③ 도덕적 감정은 도덕의 진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알고있다.**
- ④ 도덕성은 판단되기보다는 느끼는다고 말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알고있다.**
- ⑤ 도덕적 행위와 행복의 추구가 양립할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알고있다.**

14. 갑, 을이 <문제 상황> 속 K 군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상황>
고등학교생인 K 군은 어느 날 TV를 보다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흠어머니를 돌보면서 학교를 다니는 소년 가장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려고 모아 둔 용돈이 있다는 사실이 떠오른 K 군은 그 용돈을 기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 ① 갑: 의무 의식을 기부 행위의 기반으로 삼아서는 **X** 됩니다.
- ② 갑: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경향성에 따라 기부해야 합니다. **X**
- ③ 을: 기부 행위는 유용성과 무관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X**
- ④ 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기부해야 합니다. **X**
- ⑤ 갑, 을: 이성의 명령을 직접적인 동기로서 삼아 기부해야 합니다. **나옴 X. 도덕감이 행위 동기.**

1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부정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우리는 자연과 일치하지 않는 일은 결코 내게 일어나지 **스토아** 않는다는 것과, 나에게서는 신과 나의 영혼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을: 우리는 자연적 본성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육체적인 욕망은 충족시키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육체적인 욕망은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자연에 복종해야 한다.

- ① 개인의 욕망 충족이 사회적 쾌락 증진으로 이어지게 노력해야 한다. **X X**
- ②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 **O O**
- ③ 신과 자연과 인간의 본성인 이성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O X**
- ④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O O**
- ⑤ 자연의 필연적 법칙에 순응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O X**

① 스토아 = 사회적 '쾌락' ? 고려하지 않음
에피쿠로스 = 사회적 쾌락이 쾌락 증진 관심 없음.

7.은 위낙유한 내용. 왕제는 장타원적이 실제적
공공체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여클스비만)

L. A. Killer Type 3) 제시문 독해형. 제시문은 이미 제1원칙 = 기본 자유의 원칙. 제1원칙이 잘 보강되고 있음. 제2원칙 = 차등. 개헌은 원형. 그러안 내면에서 자율적 평등이 있음. 된다는 것. 기본적인 자유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제2원칙은 보장되지 않음.

16.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덕은 인간 본성의 목적이 되는 행복을 성취하게 해 준다. 덕은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중용을 목표로 삼는다. 덕을 소유한 사람은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하고 마땅히 피로워해야 할 것에 고통을 느낀다.
- 모든 공동체는 선을 추구하는데,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최고이며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면서 최고선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다름 아닌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이다.

- ① 인간 본성의 목적이 정치 공동체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② 덕은 실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임을 강조한다.
- ③ 실천적 지혜는 중용을 파악하게 해 주는 품성적 덕임을 강조한다.
- ④ 행위자의 성품보다 추상적 도덕 원리를 중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⑤ 모든 행위와 감정에 항상 중용 상태를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17.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너의 스승은 "관(觀)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 경(經)도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교관에 지극히 마음을 다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슴속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엄을 전수하더라도 관문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을: 점수문에 속하는 열등한 수행이더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는 필요하다. 망상이 들끓으면 우선 정(定)으로 그 마음을 다스려 본래의 고요함으로 되돌리고, 혜(慧)로 명한 상태를 다스리면 결국 대자유인이 될 것이다.

- ① 갑은 내적인 교(敎)와 외적인 선(禪)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정혜를 함께 닦는 것을 수심(修心)의 요체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아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참선을 통해 악한 본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화두(話頭)를 들고 수행하는 간화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18.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특정한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 동의가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자는 그럼으로써 정치적 동의를 한 셈이며,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한 의무를 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법률에 복종하며 살면서 그 법률이 제공하는 특권과 보호를 향유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 ① 국가의 구성원은 모두 정치적 의무를 지니는가?
- ② 명시적 동의만으로도 정치적 의무가 성립하는가?
- ③ 정치적 의무의 성립 근거는 개인의 동의에 있는가?
- ④ 국가의 보호를 받는 자는 모두 그 국가의 구성원인가?
- ⑤ 국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입증의 동의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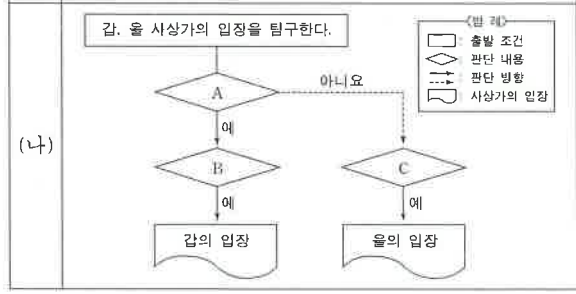
Thick! 합성 "모든"

제시문 독해형 = '정보를 받는 것이 곧 국가 구성원이다'

19.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가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최후 상태가 있다고 하자. 만일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함으로써 가장 불운한 계층의 처지가 최후 상태에 비해 개선된다면, 그러한 불평등은 정의에 부합한다.

을: 모든 것이 매매되고 모두가 같은 양의 돈을 갖는 최후 상태가 있다고 하자. 이러한 단순 평등 상태는 자유 교환으로 결국 불평등해지므로,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들을 갖는 복합 평등 상태가 정의에 부합한다.



- (보기)
- ㉠ A: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최후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하는가?
 - ㉡ B: 정의의 제2원칙은 제1원칙의 위반을 교정하는 원칙인가?
 - ㉢ C: 본래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인가?
 - ㉣ C: 정의의 세분화된 영역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해야 하는가?

- ㉠ ㉡ ㉢ ㉣
- ㉠ ㉡ ㉣
- ㉡ ㉢ ㉣
- ㉠ ㉡ ㉢

20.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선천에서는 상극의 이치가 세상을 지배하여 원(冤)과 한(恨)이 쌓여서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므로, 내가 친지도수를 뜯어 고쳐서 상생의 도로써 선경(仙境)을 열고 조화 정부를 세우겠다.

을: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모든 부처님과 성인의 심인(心印)인 법신불 일원상(一團相)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영육쌍전(靈肉雙全)을 통해 개인·가정·사회·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 (보기)
- ㉠ 갑은 무속과 도교를 배척하고 해원(解冤)을 강조한다.
 - ㉡ 을은 시대 변화에 맞춰 정신보다 물질의 개혁(開闢)을 강조한다.
 - ㉢ 을은 율령 속에서의 보은·평등·불공의 실천을 강조한다.
 - ㉣ 갑, 을은 신본과 남녀의 차별을 떠난 평등사상을 강조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